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Review on Medical Texts in Joseon Dynasty

Hun-Pyeo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edical texts in Joseon Dynasty have changed in time and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Medical texts that reflect the medical standards of the time were enable us to look into how medical bureaucrats were trained and education policies related to the training.

Chinese medicine influenced Joseon Dynasty's medicine in different ways at different times. Before the Imjin War, Joseon dynasty's medicine was larg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ng dynasty's medicine. After the war, the four noted physicians of Jin-Yuan era had increasingly more significant influence,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Ming dynasty's medicine.

The facts found through this study include : 1) the basic courses were composed of Chandomac (纂圖脈), Dongingyeong (銅人經), and Boncho (本草); 2) Josenization of medical division system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世祖), and updated throughout the time of the King Seongjong (成宗) and King Sun Jo (宣祖); 3) Hyangyak (鄉藥) education with medical texts was limited to some periods like King Seongjong (成宗) and King Sejo (世祖); 4) the high proportion of Bangseo (方書) in the early era gradually decreased, and more of specialized and comprehensive medical books came to find their way into the standard curriculum.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 texts, Gyeongguk daejeon, Uigwa, King Sejo (世祖)

I. 서론

조선시대에 의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과에 등제하거나 兩醫司(전의감, 혜민서)의 취재에 입격하여야 했다.

許浚의 사례처럼 추천에 의해 내의로 낙점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仕路는 아니며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 조선 개국 초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기존 왕실과 관련 있는 의원들이 왕실 진료를 담당했다. 의과가 실시된 이후로 연산조 이전의 경우 잡과는 서얼허통의 대상이 아니었고, 문과처럼 적자만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의과가 의관이 되려는 목적이 아닌, 양반 자체가 관리가

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내의원의 내의는 의과 출신자만을 임용하고,¹⁾ 전의감 또한 중6품 주부 이상의 관직은 의과 출신자만을 임용하는 것으로 명문화된다.

전의감 중 7품 직장 이하 및 혜민서, 심약, 기타 관서의 藥房 등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취재의 점수에 의해 임용되었다. 내침의와 의약동참의의 경우, 추천에 의해 낙점되는 방식이지만,²⁾ 이들 또한 상당수가 양의사 취재 출신이었다. 方外醫가 낙점되는 사례도 있으나, 개인의 특출한 술기를 인정받은 흔치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과와 의원 취재에는 당연히 시험 과목이 있었다. 이들 과목은 나라에서 인정한 의학 교과서이며 당시 의학의 표준이다. 한의학은 임상 경험의 축적과 질병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해 왔다. 논자는 『실록』 및 여러 법전, 『해국지』 등 관련 문헌을 탐구하여, 시대별 과목 변

접수 ▶ 2016년 11월 02일 수정 ▶ 2016년 11월 29일 채택 ▶ 2016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1) 박훈평.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괴플. 2015:13.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 被薦人, 啓目差下.”

2) 박훈평. op. cit. p. 15.

천에 따른 조선의학 발달의 큰 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정 시기의 의학에서 강조된 점이나, 외부 특히 중국의 의학 영향도 논하고자 한다. 중국 의학은 당대에 우리나라보다 선진의학으로 평가받았고, 지리적인 위치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조선시대 의관 선발에 대해서는 출신 내력이나 가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김진이 영조 정조시기에 특정하여 『의과방목』을 분석 조사하였고,³⁾ 조선 중기 三醫司의관의 가계 배경에 대한 연구도 행해진 바 있다.⁴⁾ 『실록』과 『경국대전』에서 의과의 의원 취재에 대한 제 규정은 여러 논저에서 인용되었다.⁵⁾ 특히 손홍렬은 의학교과서 장을 따로 두고 비교적 상세하게 논하였다.⁶⁾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의관의 신분에 주목하거나, 단순히 『실록』과 법전의 규정을 나열하여, 의과 과목은 시험 과목의 종류와 출입 정도를 언급한 수준이다.

의학 교과서 변화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당대 의학 수준을 가늠하고, 시대별로 위정자들이 추구했던 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의사 국시 과목의 가감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주장과 행동이 있었다. 조선시대 의관의 양성과 교육을 위해 사용된 교과서 연구는 이 사안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면이 있다.

① 내용

○ 세종 12년(1430) 3월, 詳定所에서 의학의 취재 과목에 대해서 “『直指脈』, 『脈纂圖』,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括, 『聖濟總錄』, 『危氏得効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이라 아뢰었다.⁷⁾

○ 세종 12년(1430) 12월,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의원의 사맹삭 취재 때와 의녀의 매월 고강에 아울러 『産書』도 시험 과목에 넣게 하라.”하였다.⁸⁾

○ 세종 24년(1442) 2월, 이조에서 아뢰기를 “濟生院을 혁파하여 鍼灸專門生들을 惠民濟生院에 분속시키고, 매년 취재 때에는 三醫司인이 아울러 『針灸經』을 시험하게 하소서.”⁹⁾하였다.

② 분석

세종 12년 『실록』 기사에서 언급되는 의서 수는 3월의 25종과 12월의 1종 모두 합하면 26종이다. 종합의서의 경우 한 종으로 추산했다.

2) 의서별 도입과 간행 시기¹⁰⁾

(1) 중국 의서

① 『素問』

원제는 『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송나라 교정의서국 교정을 거친 판본이 국내에 보급되었는데, 갑진자, 을해자 동활자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중간된 목판본이 현존한다.¹¹⁾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의과 과목으로 활용된 의서이다.¹²⁾

II. 본론

1. 世宗 시기

1) 문헌기록

(1) 『실록』

3)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9;104:1-93.
 4) 박훈평.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 삼의사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3;26(2):161-174.
 5)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183-186, 김두중. 『한국의학사 전』 서울:탐구당. 1966: 200-201, 三 木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 1991:123-124, 146-147. 김진. op. cit. p. 10-25.
 6)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222-230, 246-261.
 7)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본고에서 『실록』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다.
 8) 세종 12년 12월 15일 기사
 9) 세종 24년 2월 15일 기사
 10) 본고에서 의서의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이 제공하는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을 활용해 검색했다.
 11) 갑진자본은 일본 다케다문고 소장. 을해자본은 일본 궁내청과 미하라 시립도서관에 소장. 고려대 도서관에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 소장
 12) 손홍렬. op. cit. p. 127.

태종 12년(1412) 8월 충주사고의 책을 바치게 할 때 언급되는 데,¹³⁾ 이 판본이 중국 판본인지 고려 간본인지는 분명치 않다.

② 『銅人經』

원제는 『新刊補注銅人臉穴鍼灸圖經』. 송나라 王惟一이 초간하고, 금나라 賸叟가 교정 간행한 경혈서이다.¹⁴⁾ 태종 17년(1417) 『실록』 기사에서 처음 언급된다.¹⁵⁾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고,¹⁶⁾ 이후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세종 13년(1431) 唐本만 있으므로, 경상도에서 판각하게 된다.¹⁷⁾ 이 초간본이 현존하는데 말미에 “正統己未年(1439년) 濟生院綠事 金貯河 改誤校正”이라는 간기가 있어 세종 21년에 초간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후 여러 차례 중간된다.

③ 『傷寒類書』, 『直指方』, 『直指脈』

『傷寒類書』은 송나라 楊士瀛이 저술한 상한서이다.¹⁹⁾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다.²⁰⁾ 세종 13년(1431) 唐本만 있으므로, 주자소에서 간행하게 하였으나,²¹⁾ 현재 전하지 않는다.

『直指方』은 같은 저자가 1264년에 저술한 20권으로 된 방서로²²⁾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고,²³⁾ 이후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세종 13년(1431) 唐本만 있으므로, 주자소에서 간행하게

하였는데,²⁴⁾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후대의 간본만 전한다.

『直指脈』은 같은 저자가 1262년에 저술한 맥학서이다.²⁵⁾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고,²⁶⁾ 성종 9년(1478) 의녀의 강서로도 활용되었다.²⁷⁾ 중종 38년(1543)에 간행 기록이 있고,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율해자 동활자본 낙질과 규장각 소장의 광해조 목활자본 낙질이 현존한다.²⁸⁾

④ 『婦人大全良方』

중국 송나라 陳自明이 1237년에 저술한 24권으로 된 산부인과 전문서.²⁹⁾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고,³⁰⁾ 이후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갑진자 동활자본이 현존한다.³¹⁾

⑤ 『本草』

송나라 張存蕙가 편찬한 『重修政化經史證類備急本草』, 『본초연의』와 『경사증류비급본초』를 합본하였다. 『본초연의』는 1116년 寇宗奭이 저술하였고, 『경사증류비급본초』는 같은 해 趙孝忠이 편찬하였다.³²⁾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의과 과목으로 활용되었다.³³⁾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고,³⁴⁾ 초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세종 24년(1442) 2월 함길도에 방서를 보내라는 말로 보아,³⁵⁾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초간 목판본은 전

13) 『실록』 태종 12년 8월 7일 기사

14)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일지사. 1984:149.

15) 태종 17년 8월 20일 기사

16)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17) 『실록』 세종 13년 5월 11일 기사

18) 소장자는 알 수 없음. 2016년 6월 서울 고서 경매 출품

19) 홍원식. op. cit. p. 166.

20)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21) 『실록』 세종 13년 5월 11일 기사

22) 홍원식. op. cit. p. 166, 183.

23)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24) 『실록』 세종 13년 5월 11일 기사

25) 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1489.

26)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27) 『실록』 성종 9년 2월 6일 기사

28) 규장각 소장

29) 홍원식. op. cit. p.176.

30)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31)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완질 소장. 성암고서박물관과 충남대 도서관에 낙질 소장

32) 홍원식. op. cit. p. 148.

33) 손흥렬. op. cit. p. 127.

34)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35) 『실록』 세종 24년 2월 25일 기사

하지 않고, 을해자본과 그 번각본 등이 현존한다. 『본초연의』, 『대전본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문헌에서 보이나, 조선 간본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판본이다.

⑥ 『纂圖脈經』

육조시대 高陽生이 저술한 1권의 백학서.³⁶⁾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의과 과목으로 활용되었다.³⁷⁾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고,³⁸⁾ 세종 31년(1449) 3월 함길도 반사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초간 되었다.³⁹⁾ 목판본 낙질이 남아있다.⁴⁰⁾ 조선에 유래된 판본은 현존본의 간기에 “至正己丑盧陵竹坪書堂刊行” 기록이 있어서, 1349년 원나라 간본을 수입해서 교정 없이 조선에서 그대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⑦ 『危氏得効方』

원나라 危亦林이 1345년에 간행한 19권으로 된 방서이다.⁴¹⁾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고,⁴²⁾ 이후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초간본은 세종 7년(1425)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낙질이 현존한다.⁴³⁾ 이후 갑진자본과 목판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⑧ 『和劑方』, 『和劑指南』

『和劑方』은 송나라 陳師文 등이 1107-1110년에 저술한 5권의 방서.⁴⁴⁾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고,⁴⁵⁾ 초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세종 24년(1442) 2월 함길도에 방서를 보내라는 말로 보아,⁴⁶⁾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임란 이전 목판본은 현존하지만 초간

본 여부는 알 수 없다.⁴⁷⁾

『和劑指南』은 송나라 許洪이 1208년 저술한 『用藥總論指南』 3권을 지칭하는데,⁴⁸⁾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고,⁴⁹⁾ 『경국대전』에서 『和劑方』 대신 암송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해졌다. 조선 판본은 『和劑方』 뒤에 부록 식으로 붙여있다.

⑨ 『濟生拔粹方』

『濟生拔粹』는 원나라 杜思敬이 찬집하여 1308년 간행한 총서로, 금 원대 명의명저 19종을 집성했다.⁵⁰⁾ 19종은 다음과 같다. 『鍼經節要』, 『雲岐子論經絡迎隨補瀉法』, 『寶太師流注指要賦』, 『鍼經摘英集』, 『雲岐子七表八裏九道脈訣論併治法』, 『珍珠囊』, 『醫學發明』, 『脾胃論』, 『潔古家診』, 『此事難知』, 『醫壘元戎』, 『陰證略例』, 『雲岐子保命集論類要』, 『痰論萃英』, 『田氏保嬰集』, 『蘭室秘藏』, 『活法機要』, 『衛生寶鑑』, 『雜類名方』. 금원사대가 중 하나인 李杲와 그 제자인 王好古, 羅天益, 李杲의 스승인 張元素 등의 저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밀줄 그은 10종) 금원사대가 중 하나인 朱震亨의 저작도 『活法機要』 한 책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 금나라 張璧 저작은 3종이 실려 있다. 3종의 의서 모두 雲岐子が 이름에 들어가 있다.

『濟生拔粹方』이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으니, 李杲와 朱震亨의 의서가 이 때 강서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후 『鍼經摘英集』만 『경국대전』에서 침의 취재 강서로 언급되고, 나머지 의서는 과목에서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동원십서』가 의학 강서가 되면서, 이에 수록된 『脾胃論』, 『此事難知』, 『蘭室秘藏』이 다시 강서로 활용된다. 『濟生拔粹方』의 조선 간행 기록은 없다.

36) 홍원식. op. cit. p. 118.

37) 손홍렬. op. cit. p. 127.

38)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39) 『실록』 세종 31년 3월 2일 기사

40) 2016년 8월 서울 교서경매장에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 낙질이 출품. 현재 소장자는 미상이다. 초간인지 중간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41)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395.

42)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43)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

44) 홍원식. op. cit. p. 152.

45)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46) 『실록』 세종 24년 2월 25일 기사

47)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2질 완질, 덴리대학 이마니시문고에 완질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허준박물관 낙질 소장

48) 홍원식. op. cit. p. 152.

49)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50)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489.

⑩ 기타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졌으나,⁵¹⁾ 이후 강서로 활용되지 않은 의서는 다음과 같다. 이들 의서는 『御藥院方』과 『醫方集成』을 제외하면 조선 간본이 알려진 바 없다.

『難經』은 秦越人の 저작으로 알려진 古醫經을 해석한 이론서이다.⁵²⁾ 고려시대 의과 강서로 고려 문종 12년(1058) 9월 충주에서 판각한 기록이 있다.⁵³⁾ 『千金翼方』은 당나라 孫思邈이 682년에 저술한 30권의 방서이다.⁵⁴⁾

『聖濟總錄』은 송나라 교정의서국에서 1118년에 편찬한 200권의 방서이다.⁵⁵⁾ 세종 27년(1445) 4월 제도 관찰사에게 이 책을 구하도록 명하는 내용이 있다.⁵⁶⁾ 『濟生方』은 송나라 嚴用和가 저술한 10권의 방서이다.⁵⁷⁾ 『百一選方』은 송나라 王璆가 1196년 편찬한 방서이다.⁵⁸⁾ 『針灸經』은 송나라 때인 992년에 저술된 편자 미상의 7권으로 된 침구서로⁵⁹⁾ 『醫方類聚』의 인용문헌이기도 하다.⁶⁰⁾ 『雙鍾處士活人書』이란 표제를 가진 의서는 없는데, 다만 『醫方類聚』의 인용문헌에서 『南陽活人書』, 『無求子活人書』, 『傷寒活人書』로 언급되는⁶¹⁾ 송나라 朱肱의 저작과 동일서로 추정된다.

『御藥院方』은 원나라 許國楨에 의해 1267년 증보되어 중간된 11권으로 된 방서로,⁶²⁾ 조선 간본으로 갑진자본이 현존한다.⁶³⁾ 『醫方集成』은 원나라 孫允賢原에 1321년에 선집된 방서이다.⁶⁴⁾ 세종 13년(1431) 5월 주자소에서 간행하라는 기록이 있는데,⁶⁵⁾ 실전되었다. 『瑞竹堂方』은 원나라 沙圖穆蘇(인도 출신)가 1323년에 15권으로 편찬한 방서이다.⁶⁶⁾

『寶氏全書』이란 의서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책 이름으로

보아 소아과의서로 생각된다. 이 책은 『醫方類聚』와 『동의보감』의 인용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2) 조선 의서

① 『産書』

세종 12년(1430) 12월 의원과 의녀의 강서로 처음 언급되었다.⁶⁷⁾ 이 시기 초간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 이후 중종 38년(1543) 간행 기록이 있다.⁶⁸⁾ 현재 실전되었다.

② 『鄉藥集成方』, 『牛馬醫方』

『鄉藥集成方』은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세종 15년(1433)에 완성된 『鄉藥集成方』⁶⁹⁾ 간행 이전 시기이므로 金喜善 등이 저술하여, 정종 1년(1399)에 강원도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鄉藥濟生集成方』을 말한다. 『牛馬醫方』은 수의학전문서로 현존본 『鄉藥濟生集成方』 말미에 붙어있다.

3) 소결

세종 12년 『실록』 기사에서 언급되는 의서 수는 모두 26종이다. 이중 조선의서는 3종이고, 나머지는 중국 의서인데, 23종에 송나라 13종, 원나라 5종으로 송원대의 저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류별로 나누면 방서가 11종, 분과의학

51)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52) 홍원식. op. cit. p. 95.

53) 韓致齋 등이 편저한 『해동역사』 44권 藝文志에 나온다. 해당 내용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54) 홍원식. op. cit. p. 128.

55) 홍원식. op. cit. p. 141.

56) 『실록』 세종 27년 4월 26일 기사

57) 홍원식. op. cit. p. 174.

58) 홍원식. op. cit. p. 183.

59) 劉時覺. 『宋元明清醫籍年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2.

60)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23.

61) 崔秀漢. op. cit. p. 23.

62)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392.

63)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

64)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395.

65) 『실록』 세종 13년 5월 11일 기사

66)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395.

67) 『실록』 세종 12년 12월 15일 기사

68) 『실록』 중종 38년 7월 16일 기사

69) 『실록』 세종 15년 6월 11일 기사

서가 13종으로 방서가 가장 많으며, 분과의학서 내에서는 침구경혈, 상한, 부인과, 진단 각 2종이 있다. 원대 의학서는 5종중에 4종이 방서에 속하는 특징도 있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세종 대에는 첫째, 송대 의학을 기본으로 삼고, 금원대 의학은 경험방 위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금원사대가 중 李東垣 학파와 朱震亨의 저작은 『濟生拔粹方』을 통해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주된 흐름은 아니다. 둘째, 의서를 통한 향약 교육이 시행된다. 선대에 완성된 『鄉藥濟生集成方』과 『牛馬醫方』을 강서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鄉藥集成方』의 간행과 『의방유취』의 집필에도 이어진다. 셋째, 유일하게 추가된 조선인 저작의 전문의서가 『産書』라는 점은 당시 지배층에게 있어 산과의학이 매우 중요한 분과였음을 시사한다.⁷⁰⁾

2. 世祖 시기

1) 문헌기록

(1) 『실록』

① 내용

○ 세조 4년(1458) 3월, 예조에서 아뢰기를 “『本草』, 『纂圖』, 『直指方』, 『得效方』, 『和劑指南』 등의 서책은 醫家の 근본이라 알지 않을 수가 없으니, 諸科에 분속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읽게 하여 아울러 강하게 하소서.”하였다.⁷¹⁾

○ 세조 7년(1461) 10월, 예조에 전지하기를, “의학의 취재를 할 때에는 『黃帝素問』을 아울러 강하라.”하였다.⁷²⁾

○ 세조 8년(1462) 2월, 예조에서 의서습독관을 권장하는 내용에 “『直指』, 『纂圖』의 2書を 배강하여 略 이상인 자와, 『瘡疹集』, 『産書』, 『張子和方』 중 2書を 임문해서 강하여 모두 略인 자와, 그 나머지 여러 방서 중 - 후략 - ”⁷³⁾가 있다.

○ 세조 10년(1464) 1월, 의원 취재 강서에 대해 예조에서 정하기를 “정종3품은 『素問』을 강하고, 정·종4품은 『張子和方』을, 정종5품은 『小兒藥證直決』, 『瘡疹集』을, 정종6품

은 『傷寒類書』, 『外科精要』를, 정종7품은 『婦人大全』, 『産書』를, 정종8품은 『直指方』을, 정종9품 이하 생도에 이르기까지는 『銅人經』을 강하게 하고, 오직 『大全本草』, 『脈經』만은 모두 강하게 하소서.”하였다.⁷⁴⁾

○ 세조 10년 5월, 예조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素問』, 『張子和方』, 『小兒藥證直決』, 『瘡疹集』, 『傷寒類書』, 『外科精要』, 『婦人大全』, 『産書』, 『直指方』, 『銅人經』, 『大全本草』로 講에 臨하되, 『纂圖脈經』은 背講하며,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銅人經』을 背講하게 하소서.”⁷⁵⁾

② 분석

세조 10년 1월 『실록』 기사에서 언급되는 의서 수는 12종이다. 세조 12년 기사와 비교하면 『外科精要』, 『瘡疹集』, 『小兒藥證直決』, 『張子和方』, 『産書』 5종이 추가되었고, 『直指脈』, 『和劑方』,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土活人書』, 『鄉藥集成方』, 『難經』, 『聖濟總錄』, 『寶氏全嬰』,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針灸經』의 16종이 제외되었다. 세조 10년 5월 기사에 언급되는 의서는 1월 기사와 같다. 의관의 품계별로 정해진 의서를 통해 『銅人經』, 『大全本草』, 『脈經』이 기본교과서임도 확인된다.

표 1. 세조 조 과목 비교 일람

	取才	醫書習讀官 考講
素問	○	
銅人經	○	
小兒藥證直決	○	
傷寒類書	○	
外科精要	○	
婦人大全良方	○	
張子和方	○	○
瘡疹集	○	○
婦人門産書	○	○
直指方	○	○
本草	○	
纂圖脈	○	○
得效方	○	
和劑指南	○	

70) 『牛馬醫方』도 전문의서이지만 수의서라 제외했다.

71) 세조 4년 3월 11일 기사

72) 세조 7년 10월 6일 기사

73) 세조 8년 2월 14일 기사

74) 세조 10년 1월 2일 기사

75) 세조 10년 5월 15일 기사

2) 의서별 도입과 간행 시기

(1) 중국 의서

① 『小兒藥證直決』

송나라 錢乙이 저술하고 문도인 閻孝忠이 편집하여 1119년 간행한 3권의 소아과 전문서.⁷⁶⁾ 세조 10년(1464) 1월 의원의 취재 강서로 처음 언급되었다.⁷⁷⁾ 조선에서의 간행 기록은 없다.

② 『外科精要』

중국 송나라 陳自明이 1263년 저술한 피부과 전문서.⁷⁸⁾ 세조 10년(1464) 1월 의원의 취재 강서로 처음 언급되었다.⁷⁹⁾ 을해자 간본이 현존한다.⁸⁰⁾

③ 『張子和方』

중국 금원사대가 중 하나인 張子和의 저작으로 1224-1231년에 成書 되었다.⁸¹⁾ 『醫方類聚』의 인용문헌에서는 『儒門事親』으로 나온다.⁸²⁾ 蕭國綱의 주장에 따르면 『醫方類聚』에 수록된 판본은 명대 초기 판본이다. 원대 중간본(1262년)은 3권 본이고, 명대에 총서 형식으로 변하면서 점차 다른 의서가 추가되어, 청대간본(1778년)에는 15권 본이 되는데, 『醫方類聚』에서는 원래 3책 내용 외 다른 책의 내용이 보인다는 것이다.⁸³⁾ 따라서 이로서 유추하면 세조 기사의 『張子和方』는 『醫方類聚』 간행보다 후대이기 때문에, 명

대간본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 세조 8년(1462) 2월에 의서 습독관의 강서로 처음 언급된다.⁸⁴⁾ 조선에서의 간행 기록은 없다.

(2) 조선 의서

『瘡疹集』은 세조 3년(1457) 任元潛이 저술한 두창 의서이다. 세조 8년(1462) 2월에 의서습독관의 강서로 처음 언급된다.⁸⁵⁾ 이후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규정되었다. 을해자 동활자본이 현존한다.⁸⁶⁾

3) 소결

세종 대에 언급된 26종의 의서 중에 16종이 제외되고, 4종이 추가되었다. 제외된 의서는 방서가 다수인데 9종에 달한다. 이는 취재와 강학 등에 실제 활용 면에서 『聖濟總錄』 등의 방서가 너무 번잡하고 양이 많았던 까닭으로 이후 이를 추려서 축소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 시기 특징으로 먼저 송대 의학 편중의 심화이다. 세조 대 강서 14종에서 송대 의서가 9종에 달한다. 둘째, 이전 시기 이루어졌던 향약 교육이 약화되었다. 유일한 향약방서였던 『鄉藥濟生集成方』이 강서에서 제외된다. 중국 의서 위주로 공부한다면, 약재 또한 唐材 위주로 처방될 수밖에 없다. 성종 10년(1479) 『실록』 기사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⁸⁷⁾⁸⁸⁾ 셋째, 의학의 전문화와 의학이론 연구가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14종 의서에서 『直指方』, 『得效方』의 두 종에 불과하다. 넷째, 분과의학의 조선화 작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세종 대 간행된 『産書』에 새로

76) 홍원식. op. cit, p. 167.

77) 『실록』 세조 10년 1월 2일 기사

78) 홍원식, op. cit. p. 177.

79) 『실록』 세조 10년 1월 2일 기사

80)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

81)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596.

82) 崔秀漢. op. cit. p. 22.

83) 蕭國綱. 『儒門事親研究』.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26-27.

84) 『실록』 세조 8년 2월 14일 기사

85) 『실록』 세조 8년 2월 14일 기사

86) 중국 절강성 도서관 소장

87) 『실록』 성종 10년 2월 13일 기사. “『鄉藥集成方』이 이전에 이미 찬집되었으나, 근자에는 『和劑方』을 즐겨 쓰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다.”

88) 그런데 왜 이렇게 향약 교육이 약화되었을까? 교과서에서 향약을 다른 의서의 배제와는 별도로 향약의서의 간행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위민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어디까지나 의학 교과서를 주제로 다루므로, 향약에 대한 다른 정책 등은 논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다. 미키 사카에는 조선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약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약재에 자립의식이 강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三木榮. op. cit., p.171. 이경록은 이를 비판하며 “약재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토산약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추가 변수로서 기능할 뿐이다.”고 주장한다.李의 주장에 따르면 의술확대의 결과로 약재 수요 급증이 일어나면 중국산 약재로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토산 약재의 경험과 이해가 일어나면서 향약이 발달하게 된다.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혜안. 2010:305-307. 신동원은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향약제를 한글로 병기하고, 당약제의 경우는 따로 표기했음을 지적하며 향약 연구가 이후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 신동

『瘡疹集』이 추가된다. 이는 『의방유취』 편찬 교정 작업과도 관련 있다. 『의방유취』로 집적된 정보를 토대로, 분과의학 별로 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 成宗 시기

1) 문헌기록

(1) 『실록』

① 내용

○ 성종 2년(1471) 5월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원은 春等に 『素問』, 『本草』, 『直指方』, 『纂圖脈』, 『外科精要』, 『瘡疹集』을 秋等에는 『張子和方』, 『得效方』, 『婦人大全』, 『傷寒類書』, 『資生經』, 『和劑方』을 고강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였다.⁸⁹⁾

○ 성종 3년(1472) 3월, 다시 취재 과목을 정하였는데, “봄 맹삭에는 『纂圖脈』, 『瘡疹集』, 『直指方』, 여름 맹삭에는 『救急方』, 『婦人大全』, 『得效方』, 가을 맹삭에는 『胎產集要』, 『銅人經』, 『和劑方』, 겨울 맹삭에는 『本草』, 『資生經』, 『十四經發揮』에 나누어 배속시켜 취재하게 하소서.” 하였다.⁹⁰⁾

○ 성종 9년(1478) 2월, 예조에서 醫女勸課條를 아뢰기를 “의녀가 읽을 서책은 『仁齋直指脈』, 『銅人鍼穴鍼灸經』, 『加減十三方』, 『太平惠民和劑局方』, 『婦人門產書』으로 한다.”⁹¹⁾ 하였다.

○ 성종 9년 11월, 예조에서 “『鄉藥集成方』을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배포해서 향약을 개발해 쓰도록 하고, 四孟朔에 의원을 試才할 때에 이것도 함께 시험하게 하소서.”⁹²⁾ 하였다.

② 분석

성종 2년 5월 『실록』 기사에서 언급되는 의서 수는 12

종이다. 세조 10년 기사와 비교하면 『小兒藥證直決』, 『產書』, 『銅人經』이 빠지고 『得效方』, 『資生經』, 『和劑方』이 새로 들어갔다. 새로 들어간 의서는 모두 세종 12년 의학 취재 수목으로 언급된 것들이다.

성종 3년 『실록』 기사에 언급되는 의서 수는 12종으로 『素問』, 『外科精要』, 『張子和方』, 『傷寒類書』가 빠지고 『救急方』, 『銅人經』, 『胎產集要』, 『十四經發揮』가 새로 들어갔다.

『加減十三方』이 강서로 활용된 경우는 성종 9년 2월 기사가 유일하다.

(2) 『경국대전』(1476년 완성, 1485년 반포)

① 내용⁹³⁾

○ 『禮典』 諸科條
“『纂圖脈』과 『銅人經』. 【誦한다.】 『直指方』, 『得效方』, 『婦人大全』, 『瘡疹集』, 『胎產集要』, 『救急方』, 『和劑方』 【『和劑指南』이라면誦한다.】, 『本草』, 『經國大典』. 【臨文한다.】”

○ 『禮典』 取才條
“『纂圖脈』과 『銅人經』. 【이상은誦한다. 나이 50이 넘으면背誦하여도誦한 사람과 같다.】 『瘡疹集』,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全』, 『得效方』, 『胎產集要』, 『和劑方』, 『本草』, 『資生經』, 『十四經發揮』. 【이상은臨文한다.】 침구이는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 『直指方』, 『鍼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資生經』, 『外科精要』, 『鍼經摘英集』. 【이상은臨文한다.】”

② 분석

『경국대전』의 의과 과목은 11종인데, 그 중 10종이 의서이다. 성종 3년 『실록』 기사의 취재 과목과 유사하다. 『資生經』, 『十四經發揮』만 제외되었다. 이는 법전의 완성 시기(성종 7년)와 관련 있다. 취재조를 보면 일반 의원의 경우

원. 『동의보감 탕액편의 역사적 의의』: 김남일. 『동의보감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의과학 문명의 교류』. 초판.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6:190. 『실록』 성종 10년 2월 13일 기사처럼 조선 전기에는 미키 사카에 식의 도식화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세종 이후 향약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동의보감』의 성립 시점에는 신동원의 주장처럼 향약화 연구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다. 즉 당약만 기록된 의서를 공부하여도 향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일본 쓰시마 번은 1721-1723년에 쇼군의 명에 의해 『동의보감 탕액편』에 기재된 약제를 조사한 실태보고서를 남기는데 47장의 채색그림을 비롯한 178종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보면 중국의 본초서와 달리 조선에서 향약화 된 木香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시 쓰네에몬 저, 신은영 역. 『약제질정기사』.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12:147.

89) 성종 2년 5월 25일 기사

90) 성종 3년 3월 14일 기사

91) 성종 9년 2월 6일 기사

92) 성종 9년 11월 25일 기사

93) 본고에서 『경국대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12종의 의서로 성종 3년 『실록』 기사의 취재 과목과 동일하다. 침구의는 10종의 의서인데, 4종은 의원과 동일하고 『鍼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鍼經摘英集』은 기존에 언급된 적이 없는 의서이다. 성종 9년 『鄉藥集成方』을 의원 취재에 넣도록 하였으나, 성종 16년 반포된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빠지므로 일시적인 변화였다.

2) 의서별 도입과 간행 시기

(1) 중국 의서

① 『加減十三方』

원나라 徐用和가 선집하여 명나라 1413년에 초간된 『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⁹⁴⁾ 부록으로 『경험급구방』을 합쳐서 간행하였다. 『拯急遺方』으로도 부른다. 세조 2년(1456) 8월에 지방에 책판이 있는 것으로 나오며,⁹⁵⁾⁹⁶⁾ 성종 9년(1478) 2월 의녀의 강학교재로 언급되었다.⁹⁷⁾ 성종 25년(1494) 3월에도 성종 어필로 판각한 목판 간행 기록이 있다.⁹⁸⁾

② 『鍼經指南』, 『子午流注』

『鍼經指南』은 원나라 竇傑이 저술하여 1295년에 간행된 1권의 침구서로,⁹⁹⁾ 『경국대전』 기록에 처음 보인다. 국내 간행 기록은 없다. 『子午流注』는 『경국대전주해』에 竇傑의 저작으로 나온다.¹⁰⁰⁾ 『鍼經指南』은 1311년에 竇傑의 다른 침구저작과 함께 『鍼灸四書』로 묶여 나오는데, 이중에 『子午流注鍼經』이 있다.¹⁰¹⁾ 즉 『경국대전』의 『子午流注』는 『子

午流注鍼經』을 말하며, 조선에 전래된 판본도 1311년 간본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醫方類聚』의 인용문헌에도 『子午流注』가 나오는데 동일서이다.¹⁰²⁾

③ 『玉龍歌』

원나라 王國瑞가 1329년에 편찬한 『扁鵲神應針灸玉龍經』에 수록된 내용으로 추정된다.¹⁰³⁾ 『경국대전』 기록에 처음 보인다. 국내 간행기록은 없다.

④ 『鍼經摘英集』

원나라 杜思敬이 1315년에 저술한 침구서.¹⁰⁴⁾ 책 제목은 『경국대전』 기록에 처음 보이나, 세종 12년(1430)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정해진 『濟生拔粹方』에¹⁰⁵⁾ 수록되었으므로, 세종 대에 이미 활용된 의서이다. 국내 간행 기록은 없다.

⑤ 『十四經發揮』

원나라 滑壽가 1341년에 저술한 의서.¹⁰⁶⁾ 성종 3년(1472) 의원의 강서로 처음 언급되었고,¹⁰⁷⁾ 『경국대전』에서도 침의의 취재 과목으로 정해졌다. 국내 간행기록은 없다.

⑥ 『資生經』

송나라 王執中이 저술하여 1220년에 중간한 7권으로 된 침구서. 세종 21년(1439)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¹⁰⁸⁾ 이 시기 즈음에 조선에서도 초간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⁹⁾

94)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397.

95) 『실록』 세조 2년 8월 26일 기사

96) 경주장본이다. 일본 궁내청 서릉부, 경기도 박물관 소장.

97) 『실록』 성종 9년 2월 6일 기사

98) 『실록』 성종 25년 3월 24일 기사

99)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141.

100) 동양학 연구소. 『경국대전주해』.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9:222.

101)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141.

102) 崔秀漢. op. cit. p. 23.

103)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141.

104)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141.

105) 『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기사

106) 『中國醫籍大辭典』. op. cit. p. 1142.

107) 『실록』 성종 3년 3월 14일 기사

108) 『실록』 세종 21년 10월 17일 기사. 『針灸經』으로 지칭된다. 이 의서가 『資生經』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109) 『실록』 성종 2년 5월 25일 기사

이후 간행 기록은 없다. 성종 2년 5월의 의원 취재 과목이 되며,¹¹⁰⁾ 『경국대전』 기록에도 보인다.

(2) 조선 의서

① 『胎産集要』

任元潛이 저술한 산과전문의서이다. 초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성종 3년(1472) 경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盧重禮의 『胎産要錄』과 동일한 책으로 보는 오류가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별개의 책으로 고증되었다.¹¹¹⁾ 을해자 동활자본 낙질이 남아있다.¹¹²⁾

② 『救急方』

일명 『救急方諺解』. 내제가 『救急方』이다. 『경국대전주해』에 本國人的 저작으로 나오는데,¹¹³⁾ 편찬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조 12년(1466) 6월에 각도에 보냈다는 기록으로 처음 언급되고,¹¹⁴⁾ 성종 3년 『실록』 기사에서 취재 강서로 정해졌다. 청주에서 간행된 목판 2권 2책 본 완질이 현존한다.¹¹⁵⁾ 정확한 초간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성종 10년(1479) 『실록』 기사에 “세조 조에 구급방을 찬집했다.” 하므로,¹¹⁶⁾ 세조 연간의 간본임은 알 수 있다.

3) 소결

성종 대에 언급된 의서는 16종이다. 이 시기 의학교과서의 특성은 먼저 침의 취재가 세분화되었다. 침구경혈 관련 의서가 새로 언급된 경우가 많은데 중국 원대 학문성과를 주로 받아들였다. 둘째 이전시기에 이어 주요 의학 이론은 송대 의학을 계승하고 있다. 금원사대가의 저작들이 강서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셋째, 분과의학의 조선화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 『産書』를 대신해 『胎産集要』이 들어가고, 『瘡疹集』을 계속 활용하며, 새롭게 『救急方』이 포함된다. 강서

중에 조선인 저작은 모두 분과의서로 구급의학, 두창치료, 산과의학인데 이러한 흐름은 이 시기에 시작되어 선조 대까지 이어진다. 당시 위정자들이 이 세 분과의학을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방유취』 간행(1477년)이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방대한 의학 지식의 축적은 『胎産集要』 등 여러 전문의서의 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넷째, 상한 전문서가 강서에서 제외된다. 성종 2년(1472)까지 취재 강서로 활용되었던 『傷寒類書』가 『경국대전』에서 제외된 이후로 조선말까지 상한 전문서가 강서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상한학이 국가의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 점은 16세기 이후의 조선의학이 이전 시대의 우리나라 의학이나 중국의학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4. 17세기

1) 문헌기록

(1) 『諺解痘瘡集要』 발문(1608년)

① 내용

“지난 신축년(1601) 봄에 성상께서 신에게 하교하여 평상시에 『태산집』, 『창진집』, 『구급방』이 간행되었으나 전란 후에 모두 없어졌으니 너는 마땅히 의방을 가려 모아서 세 가지 책을 만들어라.”¹¹⁷⁾

② 분석

허준이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언해구급방』을 저술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던 3종의 의서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없어졌기 때문이라 밝힌다.

110) 『실록』 성종 2년 5월 25일 기사

111)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2016:36:9-27.

112) 2016년 7월 대구의 고서경매에 출품.

113) 동양학 연구소. 『경국대전주해』.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9:222. 태종 17년(1417)대와 세종 9년 경(1427)에 간행된 『鄉藥救急方』은 고려 때에 초간 되었으므로 本國人的 저작이 아니다.

114) 『실록』 세조 12년 6월 13일 기사. 『救急方』으로 기록

115) 일본 호사문고에 완질. 서울대 규장각에 낙질 소장

116) 성종 10년 2월 13일 기사

117)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역. 『국역 언해두창집요』.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1:178.

2) 의서별 도입과 간행 시기

(1) 중국 의서

이 시기 새로 강서로 언급된 중국 의서는 없다.

(2) 조선 의서

① 『診解痘瘡集要』, 『診解胎產集要』, 『診解救急方』

『經國大典』에서 의과 교과서로 규정된 『胎產集要』, 『救急方』, 『瘡疹集』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전되었다. 허준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교과서를 대신할 의서를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3종을 함께 언급하는데, 모두가 『경국대전』의 의과 강서란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의서와 비교하면 허준의 언해본은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명나라 의가의 저작인 『醫學正傳』과 『醫學傳』을 인용 문헌으로 사용하여 명대의학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② 『纂圖方論脈訣集成』

허준이 선조 41년(1581)에 저술하여, 광해 5년(1613)에 초간한 의서. 기존 『纂圖脈訣』을 교정한 책이다. 『纂圖脈』은 조선 전 기간에 걸쳐 의과와 취재의 강서로 쓰인 유일한 의서로, 의관 교육의 기초 교재로 할 수 있다. 허준이 교정을 가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소결

이 시기 의과나 취재 강서에 대한 문헌 기록은 거의 없어서, 명확한 고증은 어렵다.

16세기는 의서의 간행과 유포 기록으로 보아 『經國大典』의 규정에서 크게 변동 없었다.

큰 변화는 임진왜란 직후에 일어났다. 『胎產集要』, 『救急方』, 『瘡疹集』 3종이 실전되어, 허준이 대신할 3종의 의서를 저술하였고, 오류가 많던 기존 『纂圖脈訣』을 교정한 허준의 교정본이 광해 5년에 간행되었다.

임란 이후로도 『銅人經』, 『直指方』, 『本草』는 판본의 변화 없이 간행이 계속되었고, 『得效方』, 『婦人大全』, 『和劑方』은

간행 기록이 없다. 이는 『銅人經』, 『直指方』, 『本草』, 『纂圖脈』만이 계속 강서로 활용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속대전』 편찬 이전부터 『得效方』, 『婦人大全』, 『和劑方』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문』의 경우 1615년 내의원 교정본 이후로 계속 간행되고 있어, 17세기 전반에 이미 강서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허준의 언해의서 3종이 실제 교과서로 활용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속대전』에서 『瘡疹集』 등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교과서로의 활용 기간은 짧았을 것이다.

허준의 3종 의서 언해작업과 『纂圖』에 대한 교정 작업은 이들이 의과와 취재의 강서였다는 점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한다. 발문 등에 나타난 이들 의서의 편찬경위도 선조임금의 명이었다.

5. 18세기

1) 문헌 기록

(1) 『續大典』(1746년)

① 내용(118)

○ 『禮典』 諸科條

“『纂圖脈』과 『銅人經』. 【背誦한다.】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 【臨文하는데, 『大典』에 보인다.】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아울러 新增하여 臨文한다.】 기타 여러 책은 오늘날엔 폐지했다.”

○ 『禮典』 取才條

“『纂圖脈』과 『銅人經』. 【背誦한다.】 『直指方』과 『本草』 【이상은 『大典』에 보인다.】 『素問』, 『東垣十書』, 『醫學正傳』. 【新增하여 이상은 臨文한다.】 기타 여러 책은 지금은 폐지했다. 침구의는 의원취재에 같이 들어가고 여러 책은 오늘날엔 폐지했다.”

② 분석

의과 과목은 8종으로 의서는 7종이다. 『得效方』, 『婦人大全』, 『瘡疹集』, 『胎產集要』, 『救急方』, 『和劑方』(『和劑指南』)의 6종이 빠지고,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3종이

118) 임진왜란 이후 첫 법전으로 영조 22년에 간행되었다. 본고에서 『속대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들어갔다. 취재 과목은 변화가 더 큰데 의원취재에서 『資生經』, 『十四經發揮』이 빠지고, 집의취재가 의원취재로 합쳐지면서 『鍼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鍼經摘英集』도 강서에서 제외되었다.

(2) 『惠局志』(1778년)

① 내용

○ 祿試條¹¹⁹⁾

“試冊. 봄 여름 분기에는 『纂圖』 【背講을 하는데 나이 권 살이면 臨講을 할 수 있다. 출전 『大典』, 『素問』 【열두 권이다. 두 분기로 나누어서, 봄여름에는 上 여섯 권을, 가을 겨울에는 下 여섯 권으로 한다. 모든 책 중에 『素問』을 정식으로 주된 책으로 삼아, 일체의 臨講 과목 즉 『銅人經』이나 『纂圖』 대신에 스스로 원하면 『素問』 背講을 청할 수 있는데, 別給을 주고 점수도 배로 준다. 출전 『대전후속록』, 『東垣十書』, 『直指方』이다. 【이상 臨講으로 한다.】 가을 겨울 분기에는 『銅人經』 【背講한다.】, 『素問』, 『大觀本草』, 『醫學正傳』이다. 【이상 臨講으로 한다.】”

○ 勸獎條¹²⁰⁾

“考講을 한다. 【한 해를 네 분기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 초하루에 提調가 한 차례 고강을 한다. 背講은 매 초하루에 『醫學入門』 서른 구절로 하고, 臨文은 봄 분기에는 『醫學正傳』, 여름 분기에는 『原病式』, 가을 겨울 분기에는 『東垣十書』로 나누어서 고강한다.】”

○ 生徒考講¹²¹⁾

“講書에 따라 고강하는데 『銅人』과 『纂圖』는 背講으로 하고 다른 책들은 臨講으로 한다.”

○ 醫女考講¹²²⁾

“教授와 訓導가 『銅人』과 『纂圖』를 매 차례 나누어서 교육하는데, - 하략 -.”

② 분석

독서(취재) 과목은 『속대전』과 같다. 권장청의 고강 과목에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醫學入門』과 『原病式』이 처음 강서로 채택되었다.

(3) 『大典通編』(1784년)

① 내용¹²³⁾

○ 『禮典』 諸科條

“『纂圖脈』과 『銅人經』. 【背誦한다.】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 【臨文하는데, 『大典』에 보인다.】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아울러 新增하여 臨文한다. 기타 여러 책은 오늘날엔 폐지했다】”

② 분석

『속대전』 이후의 변화는 없다.

2) 의서별 도입과 간행 시기

(1) 중국 의서

① 『醫學正傳』

명나라 虞搏이 1515년에 저술한 8권의 종합의서로, 상한은 仲景, 內傷은 李杲, 소아과는 錢乙, 나머지 제병은 丹溪를 따랐다.¹²⁴⁾ 『의림촬요』의 인용 목록에 보이며, 임진왜란 이전에도 갑진자본이나¹²⁵⁾ 전주장본의 간행이 있어서,¹²⁶⁾ 조선으로의 전래 시기는 16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임란 이후에는 희소해져, 인조 17년(1639) 9월 당시 唐板 1질만 있으므로 전라감사에게 간행하라는 내용이 있다.¹²⁷⁾ 이후

119) 『해국지』는 해민서 관청지로 숙종 45년(1719)에 처음 저술되어, 정조 2년(1778)에 증수되었다. 박훈평. 『역주 해국지』. 서울:퍼플. 2015:47-48.

120) 박훈평. op. cit. p. 56.

121) 박훈평. op. cit. p. 58.

122) 박훈평. op. cit. p. 59.

123) 정조 8년에 간행된 법전이다. 본고에서 『대전통편』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124) 홍원식. op. cit. p. 259.

125) 고려대학교 낙질 소장

126) 선조 18년(1585)의 『고사촬요』에 책판 기록이 있다.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2007:53.

127)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18일 기사, 당시 실제 간행 유무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 승정원일기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에서 발췌.

경상감영과¹²⁸⁾ 전라감영¹²⁹⁾에서 간행된 바 있다. 『속대전』에 의과 과목으로 실리기 전에 강서로 채택된 기록은 없으나, 인조 대부터의 여러 차례 중간 기록과 『속대전』의 의과 채택으로 보아, 영조 이전에 취재의 강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② 『東垣十書』

10종의 의서를 모은 총서로 원나라 李杲의 『脾胃論』,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그 제자 王好古의 『此事難知』, 『湯液本草』, 송나라 崔嘉彦의 『脈訣』, 원나라 齊德之의 『外科精義』, 원나라 朱震亨의 『格致餘論』, 『局方發揮』와 그 제자 王履의 『邁澗集』이 수록되어 있다.

성종 19년(1488) 成健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다가 구해 왔는데, 내의원에 이를 비치하게 하고, 질을 갖추면 간행하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¹³⁰⁾ 선조 1년(1568)의 『고사촬요』 책판목록에 나누장본이 있으며,¹³¹⁾ 영조 41년(1765) 혜민서에서 목활자로 찍은 중간본이 현존한다.¹³²⁾ 『속대전』에 의과 과목으로 실리기 전에 강서로 채택된 기록은 없다.

③ 『醫學入門』

명나라 李梴이 1575년에 19권으로 저술한 종합의서이다.¹³³⁾ 소아과는 楊士瀛, 부인과는 陳自明, 內傷은 李杲, 잡병은 危亦林과 朱震亨, 상한은 『陶氏六書』, 다른 병증은 『醫學正傳』을 위주로 하고 있다.

『혜국지』를 보면 권장청에서 고강 과목으로 언급된다. 『의림촬요속집』에 인용되고 있어, 조선으로의 전래 시기는 선조 후반 시기로 추정된다. 조선판은 전라감영에서 초간된 이후 여러 차례 중간되는데 초간 시기는 인조 14년(1636) 이전으로 추정될 뿐 정확하지 않다.¹³⁴⁾ 간행 기록으로 보아, 정

조 대 이전에 이미 고강 강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原病式』

금나라 劉完素가 저술한 2권의 의서로 『혜국지』를 보면 권장청에서 고강 과목으로 처음 언급된다. 『동의보감』 인용 문헌에도 보인다. 18세기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현존한다.¹³⁵⁾

⑤ 『運氣論奧』

송나라 劉溫舒가 1099년에 저술한 3권 1책의 운기 전문서.¹³⁶⁾ 이 책을 강서로 활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經國大典』의 의과와 취재 강서에 『素問』이 포함되어면서 이 의서도 많이 읽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18세기 중후반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素問』 간본은 15책 본으로 이전의 14책에 『運氣論奧』을 합본하여 간행했기 때문이다.¹³⁷⁾

다만 『혜국지』 祿試條를 보면 『素問』은 12권만이 강서로 활용된 경우가 보이기에,¹³⁸⁾ 『運氣論奧』이 실제 강서로 사용되었는가 여부는 의문이다. 조선 간본은 임진왜란 이전 목판 판본이 현존하며,¹³⁹⁾ 이후로도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2) 조선 의서

이 시기 새로 언급된 강서 중에 조선의서는 없다.

3) 소결

이 시기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명대 의학의 도입에 있다. 의과 과목에 『醫學正傳』이 들어갔고, 강서 과목에도

128) 1758-1783년 사이에 간행. 『교남책록』의 기록과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2월 17일 기사에 의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책판이 없으므로 전라감영에 간행하도록 했다. 경상감영에도 책판이 없음이 확인된다.

129) 정조 4년(1780)의 『고책판유치고』에 전주장판이 실려 있다.

130) 『실록』 성종 19년 10월 11일 기사

131) 김치우. op. cit. p. 33.

132) 국립중앙도서관 완질 소장

133) 홍원식. op. cit. p. 259.

134) 인조 14년의 『고사촬요』의 책판 목록에 나온다. 『승정원일기』 인조 26년(1648) 10월 14일 기록으로 전라감영 판임이 확인된다.

135) 경상대학교 소장. 『완영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영조 35년(1759)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초간연도는 미상이다.

136) 홍원식. op. cit. p. 147.

137) 박훈평. 「조본 황제내경소문 판본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4;27(2):78-79.

138) 『運氣論奧』가 포함되었다면 15권일 것이다.

139) 가천박물관 소장

『醫學入門』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둘째, 방서보다는 전문의서와 종합의서 위주이다. 방서는 『直指方』 1종만 남았다. 김정선은 금원대 의학 이후 명대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辨證論治를 17세기 이전과 이후의 조선의학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¹⁴⁰⁾ 경험방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금원사대가의 의학 저술이 강서로 다시 활용된다. 세종대의 『濟生拔粹方』이나 세조대의 『張子和方』 등은 『經國大典』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에 『東垣十書』가 의과 과목이 됨으로써 朱丹溪의 『格致餘論』, 『局方發揮』, 補土派의 『脾胃論』 같은 저서들이 활용되게 된다. 劉完素의 『原病式』도 해민서 권장청에서 강서로 활용된다. 劉完素 저서의 강서 활용은 이 기록이 처음이다. 『醫學正傳』의 경우도 내상병은 이동원, 상한, 소아과를 제외한 제병은 주단계의 치법을 따르고 있기에 금원사대가의 영향이 짙은 저작이다. 참고로 『濟生拔粹方』과 『東垣十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의서는 『脾胃論』, 『此事難知』, 『蘭室秘藏』의 3종이다. 정면은 금원사대가 의학이 『醫林撮要』을 통해 일차 정리되고, 『東醫寶鑑』을 통해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¹⁴¹⁾ 17세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18세기에는 금원사대가의 저작들이 교과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6. 19세기

1) 문헌 기록

(1) 『실록』

① 내용

○ 순조 31년(1831) 8월, 전의감 제조 李羲甲이 상소하여 “醫書 가운데에 이른바 『의학입문』은 실로 이것이 의가의 학설을 하나로 모아 완성한 것이고 후학의 방향을 인도해 가리킨 것입니다. - 중략 - 다음 갑오년 식년시에 시행할 의과의 初試로부터 시작하여 『의학입문』과 『纂圖』를 동

시에 배강하고. - 후략 -.”하였다.¹⁴²⁾

② 분석

순조 34년(1834) 식년시 의과부터 『입문』이 배강과목으로 추가되었다.

(2) 『大典會通』(1865년)

① 내용¹⁴³⁾

○ 『禮典』 諸科條

“『纂圖脈』. 【背誦한다.】 『銅人經』 【臨文한다.】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 【臨文하는데, 『大典』에 보인다.】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아울러 新增하여 臨文한다. 기타 여러 책은 오늘날엔 폐지했다.】 『醫學入門』. 【新增하여 背誦한다.】”

② 분석

의과 과목에서 『銅人經』을 背誦에서 臨文으로 바꾸고, 『醫學入門』이 새로 추가되어 모두 9종이다.

(3) 『六典條例』(1867년)

① 내용¹⁴⁴⁾

○ 『禮典』 典醫監條

“『纂圖脈』과 『醫學入門』. 【背誦한다.】 『銅人經』, 『直指方』, 『本草』,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大典會通』. 【臨文한다.】”

“취재는 봄여름 분기에는 『纂圖』. 【背誦한다. 나이 50 이상이면 面講한다.】, 『直指方』, 『本草』, 『東垣十書』. 【臨文한다.】 가을 겨울 분기에는 『醫學入門』. 【背誦한다. 나이 50 이상이면 面講한다.】 『銅人經』, 『素問』, 『醫學正傳』. 【臨文한다.】”

140)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87-97.

141) 정면, 홍원식. 「금원사대가의학이 조선조의학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996;9:496-499, 513-524.

142) 『실록』 순조 31년 8월 30일 기사

143) 고종 2년에 간행된 법전이다. 본고에서 『대전회통』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144) 고종 4년에 간행된 법전이다. 본고에서 『육전조례』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② 분석

법전과목을 『大典會通』으로 바꾸고 취재 강서에 대해서 상세하나, 강서는 『大典會通』과 동일하다.

2) 소결

19세기 순조 34년(1834) 식년시 의과에 『醫學入門』이 추가된 점을 빼면, 의서 과목의 변화가 없다. 특기할 점은 청대의학자의 저작은 의과가 폐지되기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연두와 홍역 등 전염병 치료에 관련된 청대 의서가 다수 수입되고, 지방 감염에서 간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국가 의학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널리 보급되어 醫者들에게 읽힌 의서임에도 의과와 취재 과목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許浚의 『동의보감』과 許任의 『침구경험방』은 간행 이후, 조선의 의사라면 구해보고 참고하는 의서의 지위에 올랐다. 그런데 왜 이들 의서가 교과서가 되지 않았을까? 조선 전기라면 이들 의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기의 강서는 기초이론서 위주로 재편되었다. 또한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은 입문용 의서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상에 유용한 의서라 해서, 기초를 쌓고 의학입문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의학 교과서의 시대별 변천과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의학 교과서는 당대 의학의 표준으로 의관 양성과 교육의 정책방향과도 관련되어 있다.

조선 의학에 미친 중국 의학의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다. 임진왜란 이전은 송대 의학 영향 하에 있었는데, 침구학은 원대 의학의 영향도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금원사대가 학파의 영향이 강해지며 명대 의학의 도입도 있었다. 청대 의학은 공식적인 교육 체계 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논자는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았다.

첫째, 기초과목은 『纂圖脈』, 『銅人經』, 『本草』이다. 오늘날로 하면 진단학, 경혈학, 본초학으로서, 특히 『纂圖脈』은 조선 전 시대에 걸쳐 背誦 과목이었다.

허준의 3종 의서 언해작업과 『纂圖』에 대한 교정 작업은 이들이 의과와 취재의 강서였다는 점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한다. 발문 등에 나타난 이들 의서의 편찬경위도 왕명이었다.

둘째, 분과의학의 조선화는 세조 때 처음 체계를 갖추고, 성종, 선조를 거치며 갱신되었다. 구급의학, 산과의학, 천연두 치료라는 3대 분과는 위정자가 관심을 기울인 분야였다.

셋째, 의서를 통한 향약 교육은 일부 기간에 한정되었다. 이 정책은 성종 대 전기와 세종 대에서만 확인된다.

넷째, 초기에는 방서의 비중이 높다가, 전문의서와 이론서 성격이 강한 종합의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의방유취』를 통해서 의학 정보 지식이 집적된 이후에 조선의 학이 변모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의과와 취재에 사용된 교과서 연구이다. 따라서 시대별로 의원들이 주로 봤던 의서나 유행했던 의학 술기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치료를 의생들이 담당했는데, 의생 교육 교과서의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의서를 반포하는 내역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사료 속에서 드물게 나타나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중앙 의관의 의학 교과서로 국한되었다.

참고문헌

1.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87-97.
2.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 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99;104:1-93.
3. 박훈평.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 삼의사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61-174.
4. 박훈평. 「조분 황제내경소문 판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78-79.
5.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2016;36:9-27.
6. 정면, 홍원식. 「금원사대가의학이 조선조의학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996;9:496-499, 513-524.
7. 고시 쓰네에몬 저, 신은영 역. 『약재질정기사』.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12:147.
8.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

- 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183-186.
9. 김두중. 『한국의학사 전』. 서울:탐구당. 1966:200-201.
 10.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2007:33, 53.
 11. 동양학 연구소. 『경국대전주해』.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9:219-222.
 12. 박훈평.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13,15
 13. 박훈평. 『역주 해국지』. 서울:퍼플. 2015:47-48, 56, 58-59.
 14. 三 木 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 1991: 123-124, 146-147, 171.
 15. 蕭國鋼. 『儒門事親研究』.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 26-27.
 16.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222-230, 246-261
 17. 신동원. 「동의보감 탕액편의 역사적 의의」: 김남일. 『동의보감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의과학 문명의 교류』. 초판.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6:190.
 18. 劉時覺. 『宋元明清醫籍年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2.
 19.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혜안. 2010:305-307.
 20.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2-24.
 21. 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392, 395, 397, 596. 1141, 1142, 1489.
 22.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역, 『국역 언해두창집요』,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1:178.
 23.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일중사. 1984:95, 118, 128, 141, 147-149, 152, 166, 167, 176, 174, 177, 183, 226, 259.
 24.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2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26.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2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
 2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